

# 건축문화 RANG

광주·전남·전북 건축사회 신문

News 2018.9.106호

GWANGJU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5 T. 062.521.0025 F. 062.528.0026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전라남도건축사회  
전라북도건축사회  
발행인 : 강현구, 조연준, 이길환  
창간일 : 2009년 11월 10일

# 사랑

## Editorial

### “콜럼버스”를 기다리며

유난히 길고 긴 더위가 시작되기 전 초여름, 흥미로운 영화 한 편을 만나게 되었다. 제목은 “콜럼버스”. 미국에서 제작된 이 영화가 매력적이었던 것은 영화의 이야기가 건축물을 중심으로 전개되기 때문이었다. 한국인 건축과 교수의 아들인 주인공 진과 영화 속 파트너인 케이는 “콜럼버스”라는 작은 도시에서 우연히 만나 서로의 상처를 털어놓고 공감하며 위로받으며 성장해간다. 영화에서 건축물은 배경으로 물러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두 사람의 이야기 속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또 다른 대화 상대로 부각된다. 감독은 건축물에서 영감을 얻었음이 분명한 이 영화를 왜 콜럼버스에서 찍었을까?

영화의 제목이기도 한 이 도시는 미국 중서부 인디애나주에 위치한 인구 4만여 명의 소도시이다. 감독이 이 영화를 여기서 촬영한 이유는 콜럼버스에 있는 뛰어난 건축물들 때문이었다. 콜럼버스에는 에리엘과 에어로 사라넨 부자가 설계한 주택과 교회들뿐만 아니라 아이엠 페이지의 도서관, 제임스 폴섹의 병원, 조정가인 반 발 캔버그의 공원까지 유명한 근현대 건축물 80여 개가 빼곡히 들어차 있다. 이런 이유로 “근대건축의 메카”로 불린다. 어떻게 인구 4만 명의 작은 도시가 이처럼 중요한 건축물을 다수 보유할 수 있었을까?

바로 지역의 기업가인 어윈 밀러(Irwin Miller, 1909-2004)의 후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커민스 공업사의 대표였던 밀러는 지역의 열악한 초등학교 건물에 충격을 받아 신설 학교 설계비를 지원하면서 당대 뛰어난 근대건축가에게 설계를 맡겼다. 첫 번째 학교건축 지원사업이 성공하자 아예 커민스 재단을 꾸려서 지속적으로 설계비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갔다. 이런 지원사업 덕분에 훌륭한 건축가들의 작업이 이어지자 유명 건축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고 혁신적인 근대주의 건축가를 초빙하는 현상이 민간기업과 개인 건물로 확산되어 갔다. 최근까지 커민스 재단은 50여 개 학교와 공공시설의 설계비를 지원해오고 있다. 이처럼 콜럼버스 시가 근대건축의 메카가 되는 과정은 지역에 기반한 기업가의 비전과 후원 → 공공기관, 지자체의 협력 → 민간기업, 개인의 자발적 참여 → 수준 높은 건축, 도시, 예술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이해와 수용이 선순환하며 이어졌기 때문이다.

기업과 개인의 기부나 후원이 인색한 우리 사회에서 콜럼버스의 도시-건축 모형은 가능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도시와 건축이 금전 관계에 종속되도록 방지하는 데 너무 익숙한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한 사람의 건축가, 한 사람의 건축주가 각성할 때 비로소 건축의 질은 향상될 것이다. 단기간에 혁명적 사변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발전해 가는 길은 개개인의 각성과 작은 실천이 쌓이는 것뿐이기 때문이다. 이런 개인의 작은 혁명이 전체 시민의 일상이 될 때 제2의 콜럼버스는 우리 주변에 만들어질 것이다. 어윈 밀러의 말대로 “한 도시의 건물의 모습은 그 도시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이며 동시에 그 도시가 어떤 도시가 되고자 하는가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유우상 논설위원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가칭)광주전남건축사협동조합, 광주아키펠랜주식회사 창립준비 순항

9월 7일 기준 협동조합 212명과 신규법인 83명 참가희망, 발기인도 구성

광주전남건축가회,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김광현 명예교수 강연회 개최

오는 9월 20일과 21일 이틀간 오후 7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극장3에서...

광주건축사회, 2018년 회원 발전워크숍 개최한다

오는 10월 25일과 26일 충남 덕산 리솜에서... 10월 12일까지 참가신청 접수

전남건축사회, 한옥전문인력양성사업 업무협약 체결

전라남도, 전남대 산학협력단과 협약, 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 실시

전남건축사회, 2018년 건축사 실무교육 실시

지난 9월 4일과 6일 각각 여수지역과 무안지역에서 전문교육 진행

## Editorial

### “콜럼버스”를 기다리며

여수시, 2035년 도시기본계획 시민과 함께 완성해 나간다

지난 9월 5일까지 시민계획단 모집해... 여수 미래상 실현 위한 전략 제안 역할

전라북도, 제19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공모

사용승인·학생·건축사진 부문, 오는 10월 11일부터 12일까지 접수

전주시, ‘제2차 사람의 도시 아카데미’, 승효상 건축사 특강 진행

지난 8월 21일 팔복예술공장에서 ‘이 시대 우리의 도시와 건축’ 주제로 강연

전라북도, 도시재생 뉴딜 공모 역대 최고 국비 750억 확보

도, 시·군 및 관계기관 공조체제로 7곳 선정, 누적 예산 1,700억 원 확보

수산물 수출물류센터 건립사업 건축설계공모

## 인터뷰 \_ 대한건축사협회 전라북도건축사회 이길환 회장

광주건축사회 주관, 2018 제15회 건축·도시사진공모전 진행

총상금 400만 원, 광주·전남 내 우수 건축물 대상, 10월 12일까지 접수

세상사는 느낌

도시재생, 그 의미에 대하여

<http://gjkira.kira.or.kr>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

건축문화 사랑을 스마트폰에서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QR코드로 접속하신 후, 상단 '건축  
문화사랑'을 클릭하시고 홈페이지에서 유휴  
PDF파일을 다운받으시면 구독 가능합니다.





드영미술관

전승찬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에이.작  
광주 서구 시청로 41, 2404호 Tel. 062-373-3360



대지위치 : 광주광역시 동구 윤림동 330번지 외 1필지 / 대지면적 : 1,399㎡ / 건축면적 : 513.59㎡ / 연면적 : 1,222.29㎡ / 건폐율 : 36.71% / 용적률 : 68.54% / 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제1·2종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 규모 : 지하 1층~지상 2층(A동), 지상 2층(B동)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주요마감 : 노출콘크리트, 송판노출콘크리트, 0.5B고벽돌쌓기, 목재널붙이기, 티타늄아연판거울접기

**(가칭)광주전남건축사협동조합, 광주아키텔랜주식회사 창립준비 순항**  
9월 7일 기준 협동조합 212명과 신규법인 83명 참가희망, 발기인도 구성



대한건축사협회 광주광역시건축사회(이하 광주건축사회) 강현구 회장이 취임 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축사협동조합 사업과 신규법인 사업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7월부터 (가칭)광주전남건축사협동조합은 광주건축사 회원들과 전남건축사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참가자 모집을 진행했으며, 신규법인인 광주아키텔랜주식회사도 광주건축사연금관리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참가자 모집을 진행한 가운데 9월 7일 기준으로 협동조합은 212명, 신규법인은 83명의 건축사들이 참가 의사를 밝혔다.

이에 협동조합은 지난 9월 3일 광주건축사회관 소회의실에서 강현구 회장과 전남건축사회 조연준 회장을 비롯한 발기인 참여 의사를 밝힌 18명의 광주·전남지역 건축사들이 발기인 회의를 갖고, 협동조합 설립 관련 정관(안)과 사업계획서 검토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했다. 또한 신규법인도 동 시간과 장소에서 발기인 회의를 갖고 법인설립 관련 정관(안)과 사업계획서 검토를 진행했다.

현재 협동조합과 신규법인은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각각 신규직원을 채용하기로 하는 등 연내 창립을 위해 순항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현구 회장은 "아직 참가할 의향은 있지만 자세한 내용을 몰라 망설이는 회원들이 대다수이다"라고 말하며 "세부적인 사업계획과 추진 계획이 세워지고 있어 언제든지 건축사회 또는 저에게 직접 연락을 주시면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고 밝혔다.

**광주전남건축가회,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김광현 명예교수 강연회 개최**  
오는 9월 20일과 21일 이틀간 오후 7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극장3에서..



(사)한국건축가협회 광주전남건축가회(회장 박홍근)와 공동건축학교가 주최하는 '김광현 교수에게 건축을 듣다' 강연회가 9월 20일과 21일 이틀간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극장3에서 열린다.

첫째 날인 20일, 강의의 주제는 '세우는 자, 생각하는 자'이다. 사람은 건축을 왜 하며 사회는 어떻게 건축을 배워야 하는가, 그리고 세운다는 것의 본래 의미는 무엇인가, 아울러 세우는 자인 건축가는 무슨 역할을 실천해야 하는가 등에 대해 강의한다.

둘째 날인 21일, 강의의 주제는 '시간을 설계하는 건축'이다. 건축은 공간을 설계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시간도 설계한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지속가능한 사회 속의 건축을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순간적이 아닌 지속하고 시간과 함께 기억과 흔적을 남기고 일상을 중시하는 건축은 어떤 것인가를 말한다. 강의 후, 학부생, 대학원생 우선의 질문을 듣고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져 일

**같지만 다른 캐드, 아키텔랜**  
일반캐드, 리습, 3rd Party 그리고 건축전용기능까지

**이 모든 것을 이 가격에?**

**1577-7618**

MIDAS

**쓰던 방식 그대로**

기본 2D캐드 기능 지원  
리습, 3rd Party 기능 기본탑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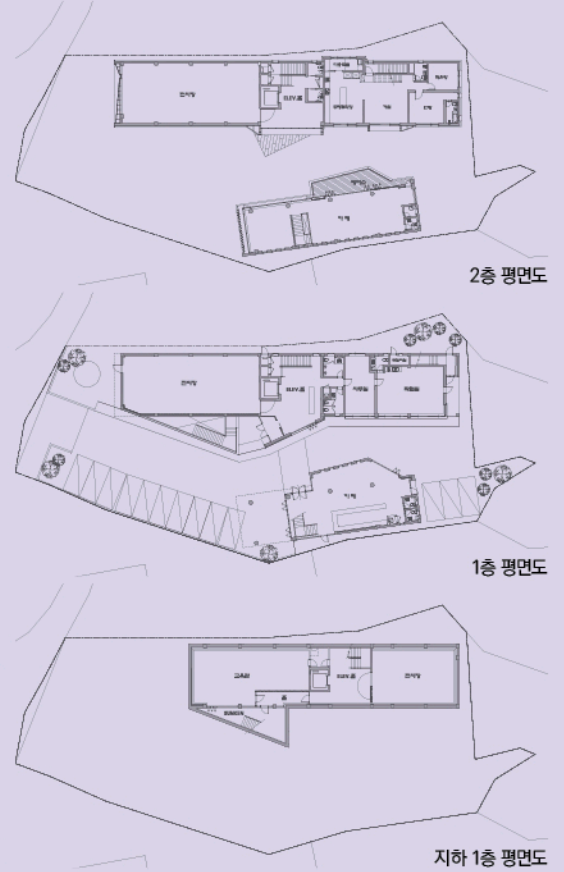
**작업효율 3배 향상**

지겨운 라인편집 작업 → Direct Draw!  
찾은 면적산정/도면수정 → Auto Revision!  
단순반복 출력, PDF변환 → 1 Click!





전시시설은 미술 전시를 위한 구체적인 공간이기도 하지만 작가들의 예술혼을 위한 메타포의 세계이기도 하다. 드영미술관은 대지와 건축이 주는 설레임과 열정을 담아 전시실과 주택, 작업실, 카페를 각각의 성격에 따라 2개 동으로 나눠 배치했다. 대지의 굴곡진 삼각형의 두 변에 두 개의 매스를 놓고 동쪽의 무등산을 향해 틈운다. 두 매스는 대지의 남쪽과 연계되며, 북쪽의 마을과 경계를 만든다. 북측은 대지의 전면을 따라가며 긴 매스가 높게 되고, 박스형 매스가 남쪽의 일부를 막음으로써 대지의 외곽선을 따라 막힘과 트임의 구조가 완성되었다. 두 건물 사이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틈은 전시관과 카페의 영역을 실질적이고 상징적으로 구분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틈으로 보이는 무등산의 전경은 이곳을 찾는 이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길 것이다.



방향의 강연이 아니라 건축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광현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명예교수는 '건축 이전의 건축, 공동성', '건축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들', '건축강의' 등의 저서를 집필한 건축의장과 건축이론에 관한 대표 권위자이다.

올해 7월 11일 JTBC <차이 나는 클래스> 프로그램에서 '건축은 우리 모두의 기쁨'이라는 주제로 강의한 바 있으며, 건축 소통 플랫폼인 공동건축학교 교장, (사)한국건축가협회 건축교육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강연은 대한건축학회 광주전남지회와 대한건축사협회 광주광역시건축사회가 후원한다.

### 광주건축사회, 2018년 회원 발전워크숍 개최한다

오는 10월 25일과 26일 충남 덕산 리솜에서... 10월 12일까지 참가신청 접수

광주건축사회와 광주건축사신용협동조합, 광주건축사연금관리회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는 2018년 회원 발전워크숍이 오는 10월 25일과 26일 1박 2일 일정으로 충남 예산군 덕산 리솜스파캐슬에서 개최된다. 광주건축사회 이사회에서는 지난 8월 27일 건축사회관 소회의실에서 2018년 제1회 임시이사 회의를 개최하고 2018년 회원 발전워크숍을 진행하기로 협의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한국고건축박물관을 비롯한 죽도 상회원 등 건축물 답사와 특별 초청 강연, 교향악단 공연, 시회 및 실험, 연금 등 현안보고 및 질의응답, 화장과의 대화가 열릴 예정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회원은 광주건축사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하여 오는 10월 12일까지 제출(팩스 : 062-528-0026 또는 E-mail : gjkira@empas.com)하면 된다.

### 광주시, 상업지역 고층아파트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오는 9월 11일 광주시청 2층 무등홀에서... 주제발표 및 토론회 열릴 예정

광주광역시는 오는 9월 11일 오후 3시 시청 2층 무등홀에서 광주다운 도시회복을 위한 상업지역 고층아파트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고층아파트의 실태와 진단'이라는 주제로 광주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노경수 교수의 발표와 '광주광역시 상업지역 내 용도용적제 현황 및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주)도시문화집단CS 정성구 대표의 발표가 진행된다.

이어 광주대학교 최완석 교수가 좌장을 맡고 (주)지이에이 건축사사무소 이창울 건축사와 동신대학교 이상준 교수, 전남대학교 조동범 교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윤희철 사무국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는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광주건축사회는 전체 회원들에게 공지하여 반드시 참석해 적극적인 의사 개진으로 건축사들의 권익향상에 일조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 제22회 광주건축상 공모 개최 안내

- 응모대상
  - 광주광역시 관내에서 최근 5년 이내(공고일 기준)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이거나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건축물(리모델링 포함). 다만 광주시에서 이미 시상 받은 건축물은 제외합니다.
  -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자의 작품에 한합니다.
- 시상구분 및 부상
  - 시 상
    - 주 거(리모델링 포함) : 금상(1점), 은상(1점), 동상(1점)
    - 비주거(리모델링 포함) : 금상(1점), 은상(1점), 동상(1점)
  - 부 상 : 설계자 ⇒ 상패 및 상금, 시공자 ⇒ 상패, 건축주 ⇒ 건축물에 동판 부착
    - 금상-주거/비주거, 설계자 [각각 1,000,000원]
    - 은상-주거/비주거, 설계자 [각각 400,000원]
    - 동상-주거/비주거, 설계자 [각각 100,000원]
- 제출기간 및 장소
  - 기간 : 2018. 9. 10. (월) ~ 9. 28 (금) 18:00
  - 장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5, 광주건축사회관 4층 광주건축사회 (Tel. 062-521-0025~6)
- ※ 제출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광주건축사회 홈페이지(<http://gjkira.kira.or.kr/>) 공지사항 198771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광주건축사회원 작품전 출품작 모집공고

1. 작품 내용 : 2017년 1월 이후 준공건축물 또는 계획 작품
2. 출품 자격 : 광주광역시 건축사 회원 누구나 가능
3. 작품 규격 : JPEG, PSD 파일로 제출 (규격 A1사이즈 1판 / 594×841mm)
4. 신청서 및 작품접수 기간
  - 신청서 : 광주건축사회 홈페이지(<http://gjkira.kira.or.kr/>)에 접속하여 공지사항에서 198713번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 2018. 10. 12 (금)까지(신청서 및 작품 파일 접수)
  - 접수처 : 대한건축사협회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우. 61228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5, 광주건축사회관 (4층)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gjkira@empas.com)
  - 제출서류 : 작품 파일(JPEG, PSD 파일)
5. 참가비 : 없음
6. 작품전시
  - 전시일정 : 2018. 10. 31. (수) ~ 11. 3 (토) 제15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
  - 전시장소 : 광주광역시청 1층 시민홀
7. 기타사항
  - 제작된 모든 작품은 전시회 종료 후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광주광역시건축사회(Tel. 062-521-0025~6)

### 法家 공증인가 법무법인 법가

대표변호사 박철 / 박철

#### ▶ 공증업무, 송무업무, 등기업무, 신청업무

- 변리사
- 대한변협 이사, 청년특위 위원장
- 광주변호사회 총무이사
- 법정문화발전협의회 위원
- 광주검찰청 형사조정위원
- 광주광역시 토지수용위원회 위원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78번길 7(지산동)  
T . 062-233-8070  
F . 062-223-5376  
M . 010-6678-1551  
E . pcgranfa@hanmail.net  
www.법가.com





## LE GRAND BLEU

이 준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제이플러스  
전남 여수시 거북선공원1길 13-6, 201호 Tel. 061-692-5011



대지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1273-9 / 대지면적 : 1,858㎡ / 건축면적 : 309.08㎡ / 연면적 : 1,225.37㎡ / 용도 : 관광숙박시설(호텔)  
규모 : 지하 1층-1동, 지상 1층-1동, 지상 4층-1동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주요마감 : STO, 리얼 징크

### 전남건축사회, 한옥전문인력양성사업 업무협약 체결

전라남도, 전남대 산학협력단과 협약, 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 실시



전남건축사회(회장 조연준)는 지난 8월 8일 전라남도과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한옥전문인력양성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사업비 보조와 총괄계획 수립 운영을 맡고, 전남건축사회는 사업비 보조와 더불어 교육생 모집에 나서며,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교육 장소 제공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사업비 정산의 역할을 분담하게 됐다.

한옥전문인력양성사업은 협약을 맺은 3개 단체가 전남도내 한옥의 대중화 및 산업화 기반 마련과 한옥의 건설시공을 위한 정확한 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1차 교육은 오는 9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약 3개월간 매주 토요일(1일 8시간)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강의실과 전남도립대학교 한옥건축과 강의실 등에서 진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미 지난 9월 3일부터 9월 7일까지 전남건축사회원들을 대상으로 선착순 30명 교육참가자 모집공고를 진행했다.

전남건축사회 관계자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지역 특성이 반영된 한옥에 대한 보존요구가 늘어나고 있으나, 고유의 전통을 간직하고 현대인이 살기에 적합한 한옥을 설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에 따라 이번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밝히며 “이를 통해 도내 회원들의 업역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 전남건축사회, 2018년 건축사 실무교육 실시

지난 9월 4일과 6일 각각 여수지역과 무안지역에서 전문교육 진행



전남건축사회는 지난 9월 4일 전남 여수 울촌도서관 2층 시청각실과 9월 6일 전남 무안 여성플라자 206호에서 회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건축사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실무교육은 전문교육 시간 인정 교육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BF인증팀 서재원 강사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도의 이해 및 인증 사례’라는 주제의 강의와 ㈜에코존 종합건축사사무소 이기완 대표의 ‘녹색건축물 통합설계’라는 주제의 강의를 진행했다.

전남건축사회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건축사등록 인증갱신을 통해 이번 교육에

많이 참여한 것 같다”며 “연말 전남 건축인의 밤 행사 시 윤리교육을 실시할 예정임에 따라 해당 교육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여수시, 2035년 도시기본계획 시민과 함께 완성해 나간다

지난 9월 5일까지 시민계획단 모집해... 여수 미래상 실현 위한 전략 제안 역할



전남 여수시가 도시발전의 청사진인 도시기본계획을 시민과 함께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 시민 참여형 도시계획을 수립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9월 5일까지 ‘2035년 여수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직접 참여할 시민 계획단을 모집했다. 시민 계획단은 도시

계획 수립 과정에서 참여해 여수 미래상 실현을 위한 추진전략 등을 제안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인원은 60여 명 수준으로 10월까지 도시·주택, 문화·관광, 교육·복지·경제, 교통·환경·안전 등 4개 분과로 활동하게 된다. 앞서 시는 지난해 문수주택단지 도시계획수립과 원도심권 경관개선사업인 컬러 빌리지 사업 전반에 시민 의견을 듣는 등 도시계획에 주민들을 참여시켜 큰 호응을 얻었다.

### 전라남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8곳 선정

국비 800억 공기업 자금 1,217억 투입... 일자리 1,800개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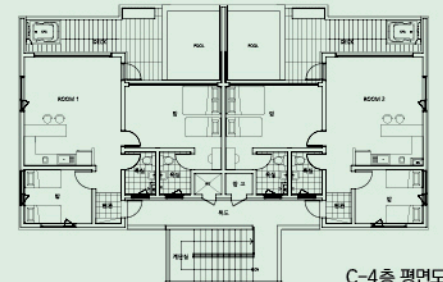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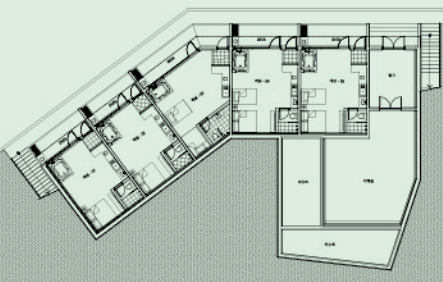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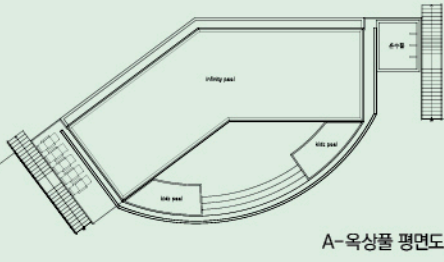
지 역	선정지	도시재생사업 성격
광양시	태인동	주거지원형
	광영동	중심시가지
나주시	영산동	일반근린
	금남동	중심시가지
여수시	문수동	주거지원형
강진군	강진읍	일반근린
보성군	벌교읍	우리동네 살리기
화순군	화순읍	일반근린

전라남도가 2018년 도시재생뉴딜사업 전국 공모에서 경기도 다음으로 많은 8곳이 선정돼 2023년까지 총 2,017억 원의 중앙정부 재원을 확보하고 일자리도 1,802개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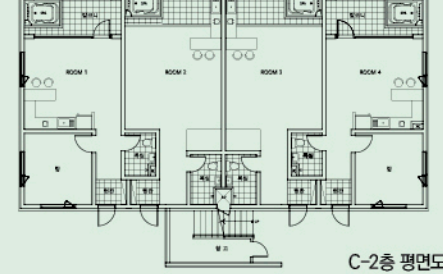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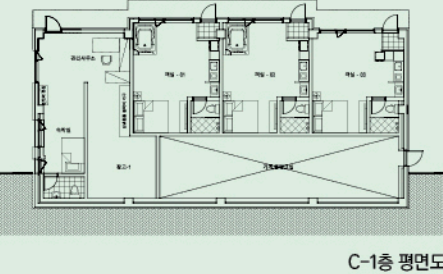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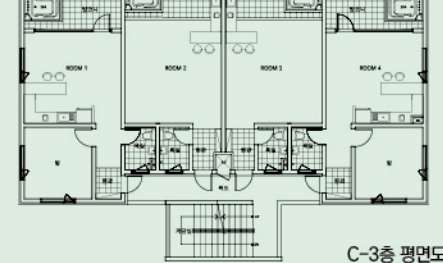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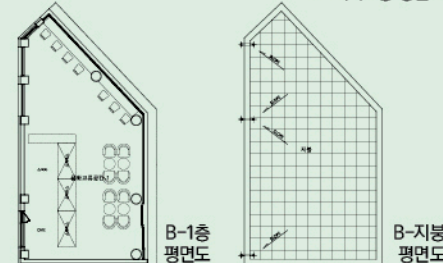
지난 9월 1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전남 8곳을 포함해 전국 99곳을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으로 확정했다.

전라남도는 지난 7월 실시한 2018년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에서도 국토교통부가 직접 선정하는 사업에 3곳이 응모해 모두 선정된 바 있다. 도가 국비 400억 원





계획부지는 돌산도 소미산 자락 끝단 무슬목 해변을 바라보는 뛰어난 경관을 가진 곳으로, 바닷가 경사진 부지의 특성을 살려 과도한 토목공사 없이 인피니티풀과 객실을 배치하였다. 2012년 여수엑스포 이후 관광도시로 재탄생하고 있는 여수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사업부지 주변의 수려한 경관을 보여주고 싶다는 건축주의 의도를 살려 각 객실 및 옥외공간에서 남해바다의 전경을 충분히 느낄 수 있게 구성하며, 전체적인 디자인은 심플하고 모던하게 계획하였다. 여수를 찾는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기억에 남을 편안한 공간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을 배정받아 선정하는 이번 공모에선 18곳이 응모한 가운데 5곳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됐다. 이는 2017년 5곳 국비 550억 원보다 늘어난 규모로, 총 8곳의 국비 800억 원이다.

선정된 8곳은 분야별로 ▲우리동네살리기의 경우 보성군 벌교읍 1곳 ▲주거지원형은 광양시 태인동, 여수시 문수동 2곳 ▲일반근린은 나주시 영산동, 강진군 강진읍, 화순군 화순읍 3곳 ▲중심시가지는 나주시 금남동, 광양시 광영동 2곳이다.

이들 지역에는 2023년까지 총 800억 원에 달하는 국비가 지원되고, LH 등 공기업에서 1,217억 원을 투자하게 된다.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 규모는 1,802개다. 전라남도는 지난 7월 소규모재생사업 공모에서도 전국 54곳 중 10곳이 선정된 바 있다.

전라남도는 2021년까지 매년 7~8곳이 도시재생뉴딜 정부 공모에 선정되도록 해 35곳 내외의 구도심을 재생할 계획이다. 도시재생 역량 강화를 위한 소규모재생사업(4억 원/곳)과 도시재생 전문가 육성을 위한 도시재생 대학도 오는 10월부터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2019년부터는 매년 도비 30억 원을 확보해 자체적으로 전남형 도시재생사업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 9월부터 건축물 소방안전 관리자 실무교육 필수

#### 전남소방안전본부, 미이수 시 50만 원 과태료 부과

전라남도소방본부는 9월 3일부터 건축물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태료 부과는 소방안전관리자 등의 역량 강화와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한 조치다.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화재 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라 시행된다.

현재 소방시설법상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에 대해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고 이들은 선임된 날부터 최초 6개월 이내, 그 후 2년마다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법정 실무교육을 받지 않은 소방안전관리자는 법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또한 과태료 부과 외에도 일정 기간 교육을 다시 받도록 하고, 만약 이를 재차 어길 경우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정지 명령 조치가 취해진다.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일정은 한국소방안전원(www.kfsi.or.kr)에서 주관하며, 자세한 내용은 관할 소방서 예방안전과로 문의하면 된다.

### 목포시, 전국의 청년들 대상으로 '괜찮아 마을 프로젝트' 진행

#### 활용되지 않고 있는 건물들 청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 1기 8월 28일 입주

올해 목포에서는 의미 있는 프로젝트가 펼쳐진다. 행정안전부와 (주)공장공장이 추진하는 '괜찮아 마을'이 그것이다. '괜찮아 마을'은 지방 도시의 활용되지 않고 있는 건물들 청년이 쉬어도 괜찮고, 실패해도 괜찮은 공간으로 조성하고, 인생을 설



계하도록 하는 청년 대안 공간 프로젝트다.

청년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껏 도전하며, 재충전하는 터전으로 목포의 원도심이 낙점됐다. 목포를 찾은 전국의 청년들은 경양식집이었던(구)로라, 여관이었던(구)우진장 등에서 가슴에 느낌표와 썬표를 찍는다.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 새로운 도전을 원하는 청년, 장소 제약 없이 활동할 준비가 된 청년, 실패했지만 다시 한번 도약하고 싶은 청년, 실력을 가졌지만 등 떠밀어 줄 누군가가 필요한 청년 등이 '괜찮아 마을'의 주민이다.

'괜찮아 마을'은 괜찮은 집(세어하우스), 괜찮은 학교(교육공간), 괜찮은 공장(공유사무실) 등 정착, 교육, 창업을 위한 공간으로 구성됐다. 청년들이 낮은 목표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체험과 학습을 거친 후 취업·창업 준비하는 과정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배낭축제 '히치하이킹 페스티벌' 개최 준비, 정기간행물 '매거진 섬' 발행, 다큐멘터리 영화 '괜찮아질 때까지' 제작 등을 진행한다.

'괜찮아 마을'은 1·2기로 진행되며, 각 기수에는 30명이 참여한다. 1기는 전국에서 140명의 청년이 신청한 가운데 면접 등을 거쳐 최종 30명이 선발됐다. 1기는 지난 8월 28일 입주식을 가진 뒤 6주 동안 목포에서 삶을 설계한다. 2기는 오는 10월 모집해 11~12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 광양시, 내 집과 어울리는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독려

#### 특색 있는 디자인 건물번호판 사용 가능, 건축사회와 협의를 통해 확대 추진



전남 광양시는 건물번호판을 내 집과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자유롭게 제작한 '자율형 건물번호판'으로 부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율형 건물번호판'은 기존의 색상과 크기가 통일된 표준형 건물번호판 대신 건물의 모양과 색상에 어울리도록 자율적으로 제작한 건물번호판을 말한다.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사용하면 일관적으로 통일된 디자인으로 인한 가시성 저하를 완화할 수 있고, 건물의 외관과 특성에 맞는 나만의 건물번호판을 제작해 이용할 수 있다.

시는 '디자인 관광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건물의 디자인과 규모 등의 특성에 맞는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건축사회에 건물의 신축, 증축 시에 '자율형 건물번호판' 신청이 들어올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등 홍보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잘 모르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신청하고자 하는 시민은 시청 민원지적과로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지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지곡동 488-11 / 대지면적 : 184.40㎡ / 건축면적 : 110.11㎡ / 연면적 : 300.31㎡  
 용도 :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 규모 : 지상 3층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주요 마감 : 도출콘크리트, 적벽돌 치장, 징크판넬 지붕

**갤러리 해밀**

이동욱 건축사 / 두손모아 건축사사무소  
 전북 군산시 조촌4길 13, 2층  
 Tel. 063-452-2335

**전라북도, 제19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공모**

사용승인·학생·건축사진 부문, 오는 10월 11일부터 12일까지 접수



전라북도과 (사)전라북도건축문화진흥연합회(회장 이길환)는 전라북도 건축문화의 질적인 향상과 아름다운 건축물을 확산하고 나아가 건축문화의 미래를 이끌어갈 건축인을 발굴하기 위한 작품을 공모한다.

올해로 19회째를 맞는 건축문화상 공모는 우수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사용승인(일반)부문과 대학생의 창의적 작품을 시상하는 학생부문, 건축사진 부문 등 총 3개 부문이며,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응모작품 접수는 10월 11일부터 12일까지이며, 접수된 작품은 건축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등을 거쳐 부문별 수상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건축문화상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라북도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 도정정보-알림마당-공지사항) 및 전라북도 건축사회 홈페이지(<http://jbkira.kira.or.kr>, 알림광장-전북건축문화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출품작품 중 심사를 거쳐 당선된 작품에 대해서는 도지사상과 각 단체장상을 수여하고 작품 전시회를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도청 전시실에서 가질 계획이다.

(사)전라북도건축문화진흥연합회 관계자는 “미래의 건축문화를 이끌어갈 건축인을 발굴하는 행사인 만큼 새로운 건축문화 창작에 뜻을 가진 건축인의 많은 성원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하고 앞으로는 전라북도 건축문화상이 더욱더 국민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시, '제2차 사람의 도시 아카데미', 승효상 건축사 특강 진행**

지난 8월 21일 팔복예술공장에서 '이 시대 우리의 도시와 건축' 주제로 강연



전북 전주시는 지난 8월 21일 팔복예술공장에서 시청 공무원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사람의 도시 아카데미'를 개최하고, 사람 중심의 가치 실현을 위한 건축·도시 분야의 다양한 선진사례를 배우고 전주가 나아가야 할 미래상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아카데미에는 제5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승효상 이로재 대표 건축사가 강사로 초청돼 '이 시대 우리의 도시와 건축'을 주제로 다양

한 도시의 모습과 건축사례들을 소개하는 강의를 진행했다.

승효상 건축사는 이 자리에서 “이 시대 도시와 건축은 우리의 기억을 보조하기 위한 장치로서 존재해야 한다”라며 “획일적이고 평면적인 사고로 만드는 도시가 아닌 그 공간 안에서 구성원들이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 행복한 도시개발과 건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도시민의 삶을 기억하며 화합으로 이끄는 공공성을 지닌 좁은 골목길, 작고 낮은 건물, 자연이 만든 숲터, 다원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공공영역에 더욱더 주목하여 공유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구축된 도시가 시민을 연대하게 하며 행복으로 이끌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사람 중심의 정책과 사업들에 대한 가치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정책 현장과의 연계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신뢰와 사회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매월 1~2차례 선진 우수사례와 혁신정책을 배우는 '사람의 도시 아카데미'를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전라북도, 도시재생 뉴딜 공모 역대 최고 국비 750억 확보**

도, 시·군 및 관계기관 공조체제로 7곳 선정, 누적 예산 1,700억 원 확보

지역	선정지	도시재생사업 성격
정읍시	수성동(LH)	중심시가지형
전주시	우아동3가	중심시가지형
	서완산동1가	우리동네살리기
김제시	요촌동	중심시가지형
남원시	동충동	일반근리형
부안군	부안읍	일반근리형
고창군	고창읍	주거지지원형

전라북도는 올해 도시재생 뉴딜 공모에 7개 사업이 최종 선정되어 역대 최고규모인 국비 750억 원을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앞서 올해 4월 국토부에서는 노후 주거지 정비 및 도시경쟁력 회복 등 도시재생 뉴딜정책 목표 실현, 지역특화 자산 활용, 국정과제 실현, 도시문제 해결 등을 위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선정한다고 공모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전라북도에서는 작년 12월 공모가 끝난 직후부터 시군과 도내 관련 기관·업체들을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워크숍과 전문가 컨설팅회의 및 전략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업발굴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공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왔다.

또한 국토부의 선정계획 발표 이후 발 빠르게 전라북도 도시재생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7월 사업신청서 접수 후 서면, 현장, 최종 등 3차례 평가과정을 통해 사업 대상지가 선정되었고, 국토부의 적격성 검증 등 재심사 과정을 무사히 통과 하였다. 특히 전국 경쟁을 통해 15개를 선정하는 중앙 공모분에 전국 26개소 중 2개소(전주, 김제)가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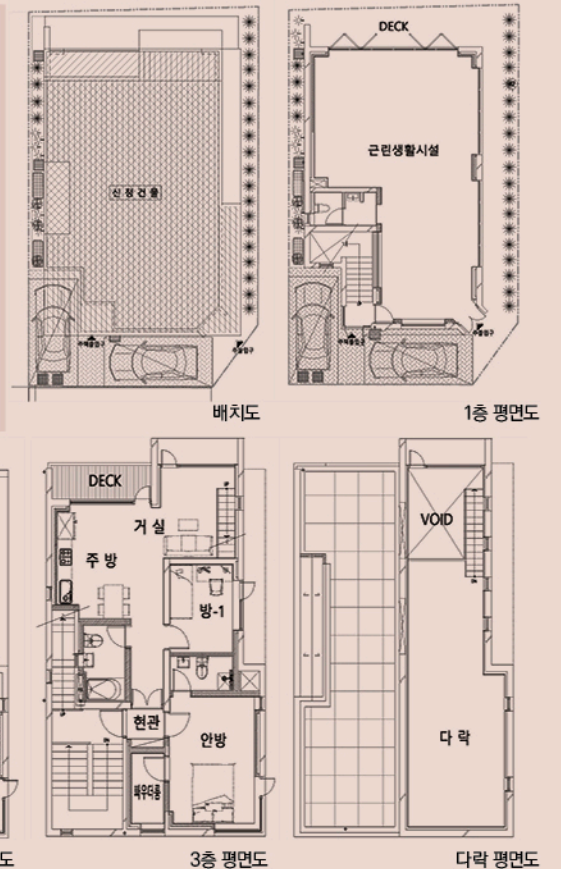




건축주의 소망은 해밀이다. 그 의미는 비가 온 뒤에 맑게 개인 하늘이다. 약 55.8평의 협소한 대지에서 이런 건축주의 소망을 이루기에는 쉽지 않았지만 작은 대지 안에 그릇을 담은 건축물을 만들어 내기 위해 설계의 박차를 가했다. 건축주는 입면의 한 면 한 면이 이야기를 담아내는 얼굴이 되길 바랐던 것 같다. 정면은 갤러리에 오는 고객들과의 만남과 인사를 위해 모서리를 이용하였고, 측면은 보행자 비좁은 도로를 끼고 있지만 분위기 있는 경사지로 계절로 치면 가을 분위기를 듬뿍 담아낼 수 있었다.

‘한마디로 벽면의 들나오고를 연출할 곳~ 아! 예쁘다.’

배면은 건물의 중요한 계획적 요소를 담아내기에 어려운 북향이었지만, 북향의 요소가 주는 의미는 남다르다. 완충녹지가 스며있어 바람막이가 되어주고 구불길 연출을 할 수 있는 작은 공원이 되었다. 느낌 있는 건물을 소화하기에 2년여 시간을 고뇌한 작품으로 건축, 미술이 합하여 나온 작품이기에 보람되었고 소중함이 묻어있는 곳이다.



또 전국 15개소를 선정하는 공공기관제안형은 전북도, 정읍시·LH가 긴밀하게 협의하여온 공공청사(정읍시 수성동 주민센터) 복합개발사업이 선정되었다.

전라북도는 '14년부터 추진 중인 기존 3개 사업(전주, 군산, 남원)과 작년에 선정된 6개 사업(전주, 군산(2), 익산, 정읍, 완주)에 올해 선정된 7개 사업 포함 누적 국비 확보액이 1,700억 원에 도달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7곳에는 2023년까지 국비 750억 원, 지방비 516억 원 등 1,266억 원이 단계별로 투입되어 쇠퇴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마중물 역할을 할 예정이다.

**전주시, 국토부 2018년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 장관상 수상, 도내 지자체 중 우수기관에 선정된 곳은 전주시가 유일**

전북 전주시는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2018년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에서 건축행정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 국토교통부장관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지난 8월 16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도내 지자체 중 우수기관에 선정된 곳은 전주시가 유일하다.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는 국토교통부가 자치단체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1999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올해는 전국 243개 광역·기초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시는 건축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전문성, 합리성 등의 분야별 실적 등을 정량적·정성적 지표를 평가한 이번 평가에서 대부분의 항목에서 상위점수를 받아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특히, 전주시 건축심의위원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 기존 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 점검, 신속한 건축신고·허가업무 처리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정읍시, 각종 '인·허가 민원 원스톱 처리 창구' 설치**

종합민원과 내에 전담창구 설치... 진행 상황 문자 서비스도 제공



전북 정읍시는 지난 9월 3일 여러 부서에 분산돼 있는 허가업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인·허가 민원 원스톱 처리 창구(이하 원스톱 창구)'를 종합민원과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원스톱 창구'는 민원인이 인·허가 민원과 관련해 해당 부서들을 일일이 찾아다니지 않아도 일괄적으로 민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별도로 설치한 허가 민원 전담 서비스 창구이다.

원스톱 창구에는 1회방문담당 팀장 1명과 민원접수 공무원 1명이 전담 배치됐다. 이들은 모든 인·허가 민원의 접수를 받아 처리 주관부서를 지정, 민원서류를 처리 담당자에게 이송한 후 민원인에게 접수처리 결과를 문자로 알려준다.

특히 처리 기간이 5일 이상인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서류 접수 2일 이내에 처리 주관부서에서 처리 예정일을 문자로 알려줌으로써 민원인들의 궁금증을 해소하

고 처리를 기다리는 동안의 조바심도 덜어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처리 주관부서가 불분명하거나 부서 협의가 필요한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실무협의회를 갖고 해결 방안을 모색, 신속한 민원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원스톱 처리 대상은 2개 이상 부서가 관련된 모든 인·허가 업무가 대상이다. 관련해 시에 따르면 공장설립 허가와 건축허가 및 신고, 태양광발전 허가, 개발행위 허가, 농지 전용 허가, 산지 전용 허가 민원이 많다.

**군산시, 자율형 건물번호판 및 상세주소 홍보 앞장서**

지난 8월 28일 군산시건축사회 월례회의 참석하여 회원들 대상으로...

전북 군산시는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상세주소 부여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지난 8월 28일 군산시건축사회 회원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시는 군산시건축사회 월례회의에 참석해 자율형 건물번호판이 건축설계단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자율형 건물번호판에 대해 꼼꼼하게 설명했으며, 임차인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근린생활시설 및 공장 등에 상세주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도로명주소 시행 이후 건물에 규격과 색상이 동일한 표준형 건물번호판이 부착되어 왔으나, 건축주가 건물의 외관과 주변의 환경에 어울리도록 크기, 재질, 디자인 등을 자유롭게 제작하여 설치할 수 있다. 건축주가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를 원할 경우 설치 신청서에 크기, 모양, 재질, 부착 위치 등을 표기한 도면을 첨부해 신청해야 하나, 건축설계도서에 반영하여 허가 및 신고를 할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상세주소'는 다가구주택, 원룸, 상가 건물 등의 임대건물에 동·층·호를 부여하는 것으로, 상세주소를 부여받지 않은 건물의 소유자 및 임차인은 시청 토지정보과로 방문해 부여 신청하면 된다.

**전북 회원동성**

- **변경(소재지)**
  - 송태천 건축사 / 진성 건축사사무소 /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137-1
  - 나경천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세움 / 전북 익산시 평동로12길 11
  - 추원호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신세대그룹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서천로 67
  - 정현수 건축사 / 엔담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릉로 121
  - 안 철 건축사 / 고운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기지로 86, 304호
  - 유창수 건축사 / 류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기지로 86, 304호
- **결혼**
  - 강문수 건축사 / ㈜울그룹 건축사사무소 / 장녀 결혼 - 09월 01일(토)
  - 이강수 건축사 / 이화 건축사사무소 / 장남 결혼 - 09월 08일(토)
- **부고**
  - 김주식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가원 / 빙모상 - 08월 05일(일)
  - 김창호 건축사 / ㈜대성 건축사사무소 / 빙부상 - 08월 24일(금)



## 수산물 수출물류센터 건립사업 건축설계공모

본 설계공모는 생산, 가공, 수출마케팅의 원라인 시스템구축, 우량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환경여건을 구축하여 지역의 수산산업 육성 및 중장기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를 도모하고자, 우수한 설계안을 선정하기 위한 설계공모를 진행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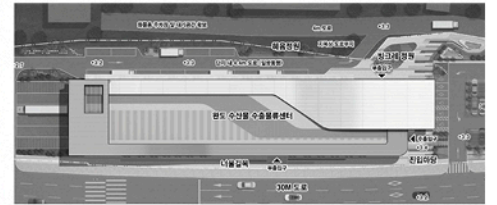
심사위원 : 고성석(전남대학교), 유우상(전남대학교), 이동희(순천대학교), 정금호(전남대학교), 정광용(순천제일대학교)

- 대지위치 :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1449
- 연 면 적 : 3,960.00㎡(±5% 이내)
- 대지면적 : 15,000.00㎡
- 용 도 : 수산물 수출물류센터
- 지역지구 : 준공업지역
- 공 사 비 : 4,700백만 원

당선작 : (주)목양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우수작 : (주)유탑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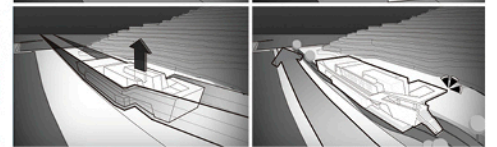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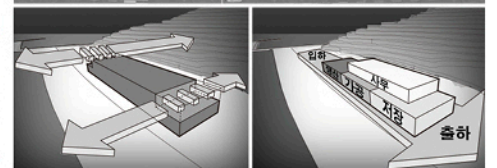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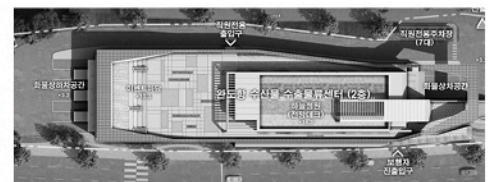
### 당선작

정현아 건축사 / (주)목양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우수작

박재형 건축사 / (주)유탑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임기동안 전북건축사회의 위상을 높이는데 주력할 생각이며, 대내외로 진정한 힘 있는 단체로 인정받기 위한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 대한건축사협회 전라북도건축사회 이길환 회장

본지에서 지난 2018년 7월호부터 광주·전남·전북건축사회 순으로 회장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특별 회장 인터뷰 코너의 마지막 순서는 작년 12월 19일 전라북도건축사회(이하 전북건축사회) 2017년 제1회 임시총회에서 제27대 회장으로 선임되어 올해 3월 22일 전북건축사회 제52회 정기총회에서 취임식을 갖고 회장직무에 돌입한 이길환 회장(주길 종합건축사사무소 이엔지)이다. 다음은 지난 8월 29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위치한 전북건축사회 회장실에서 강동영 편집인과 양우현 전북지역 부편집인, 윤미순, 양창근 편집위원, 최길호 학생 기자와 이길환 회장을 만나 나눈 인터뷰 내용이다.

### 전북건축사회장으로 취임 150여 일을 맞이해 갑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난 12월 임시총회에서 선출되어 올해 3월 22일 취임식을 하게 되었고, 500여 명의 외부인사 및 회원들이 참석해 많은 사람들의 축하로 임기를 시작한 지 150여 일이 지났습니다. 열정도 많고, 욕심도 많은 저의 성격과는 별개로 협회 일은 순간순간 끝나는 작은 일들이 아닙니다. 단기간의 성과보다는 근본적인 병을 치료하는 장기전이라도 원인을 찾아 치료하는 정책을 갖고자 합니다. 모든 게 다 싸움입니다. 협회를 대변해서 또한 힘없는 회원 한 명 한 명을 대신하여 싸워나가는 게 제 임무라 생각하고 차근차근 준비하고자 합니다.

### 회장 취임 전후로 개인적으로 변화된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은 제 개인회사에 대한 생각과 행동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북의 400여 회원을 대표하는 회장으로서 항상 회원의 입장에서 생활하고 업무하는 행동 패턴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나 하나가 아닌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이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대내적인 살림도 있지만 대외적인 건축사의 역량과 자존심을 지켜가는 것이 제 임무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지금까지 쌓아왔던 대외적 환경 덕에 우리 건축사회를 바라보는 눈들이 달라져 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대관에서 바라보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니라 이제는 대단한 전북건축사회로서 인정해주기 시작했다는 것이 달라진 점입니다. 임기 동안 전북건축사회의 위상을 높이는 데 주력할 생각이며, 대내외로 진정한 힘 있는 단체로 인정받기 위한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 취임 후 그간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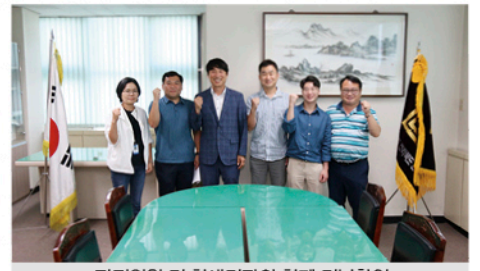
저의 공약 사항 중 회원 위상 찾기에 대한 대외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만금지역 및 도내지역 가점 찾기에 주력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새만금청과 도청을 수없이 찾아 협의하고 있고, 이제 가시적으로 정식공문 등 서류가 서로 교환되고 있을 정도로 많이 접근되고 있습니다. 새만금지역은 현재는 토목이 주이지만 작은 휴게소 편의시설, 전시시설 등 소규모 건축물이 많이 발생할 지역이라 지금부터 권리를 찾으려 합니다. 또한, 전북의 14개 시군 및 모든 지역이 조달발주보다는 지역발주라는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조달발주지역을 향의 방문하며, 적극 대응하여 올해 안에는 14개 시군 모두 지역발주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새로운 이윤 창출 분야인 도시재생 분야 진출입니다. 전주, 군산, 익산, 정읍, 완주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이 국토부 승인이 나 있어 해당 관청에 건축사가 진입하도록 권고와 부탁을 해 놓았습니다. 설계비 제값 받기 분야도 전북교육청과 오랜 싸움 끝에 제 개인 계약분 중 상당한 금액을 손해 보고, 올해부터 발주되는 모든 건에 기본 설계비 주기와 낙찰률 사전적용을 하지 않기로 협의하여, 약 30% 이상 인상되어 시행하고 있어 모든 회원의 권리는 찾았습니다. 또한, 우리 회원들의 취약분야인 법과 세무분야 관련하여 이민호 변호사와 황규표 변호사 그리고 최강록 세무사를 선임하여 회원들에게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아직은 시작입니다. 더 많은 성과를 내기 위하여 노력하고, 결과를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 공약 중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실 일들과 공약 외 추가로 추진하고 싶으신 일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 시 가장 완성하고 싶은 일은 첫 번째는 협회 명으로 수익사업을 하는 일입니다. 그동안 역대 회장님들께서도 수없이 하고 싶었던 사업입니다. 하지만, 400여 명의 동의를 받아 수익사업을 실행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당장은 아니더라도 임기 마지막 해가 되어서라도 반드시 수익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광주, 전남지역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접근방법이 조금은 다릅니다. 광주, 전남건축사회는 조합가입을 통한 수익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여 조합방식보다는 다른 방식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조합방식이란 말 그대로 조합에 가입된 사람을 위주로 하는 것이지만 전북은 전북건축사회나 별도 사단법인 등을 통해 조합원만이 아닌 회원 전체에게 그 이익이 돌아가는 방식을 찾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시작된 우리 회원의 업역 확장입니다. 특히 도시재생 분야의 올해 공고분을 반드시 건축사가 주가 되도록 시정시킬 생각입니다. 최소한 지분대로라도 반드시 건축사가 참가자가 되도록 이번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선정된 시군과 협의하여 우리의



대한건축사협회 전라북도건축사회 이길환 회장



편집위원 및 학생기자들과 함께 기념촬영 (전북건축사회 회장실에서 진행된 인터뷰 후)



전라북도 건설교통국과 간담회 개최



대한건축사협회 워크샵 강의



전북 건축인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제1회 호남지역 건축사골프대회 개최 (호남권 건축사들의 단합을 위해 이길환 회장이 주도)

권리를 찾을 생각입니다. 또한 도시계획 용역 시 건축 분야도 컨소시엄이 되도록 해당 부서와 접촉해 도시계획사업에 건축 분야 만큼은 반드시 건축사가 참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도내 지역 회장이 이사회에 참여하여 시군지역과 소통하는 문 제도 올해 안에 해결하고자 합니다. 시군지역이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현재도 정기적으로 시군지회를 방문하고 있고, 최소 지회당 일 년에 2회는 방문할 생각입니다. 이 방법만 이 많은 회원과 소통하고 대화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회장으로서 회원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나 하나는 문제없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이 우리 건축사회에 너무 만연해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모여 큰 힘을 만듭니다. 우리 회원들을 위해 고군분투할 생각입니다, 우리 회원들도 참여의식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 전북건축사회를 지속적으로 사랑하고 참여 해 주셔서 앞으로 더욱 힘 있는 건축사회가 되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설계수탁 프로그램도 이용해 설계비 제값 받기를 14개 시군까지 확대할 생각입니다. 많은 회원들이 프로그램 이용을 통해 저가 설계비 수주가 근절되는 데 큰 힘이 되도록 서로 노력해서 부동산업자들에게 끌려다니는 일이 없는 건축사의 자긍심을 찾고 싶습니다.

### 회원들에게 어떠한 회장으로 남기를 바라시는지

‘회장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힘이 있는 회장이어서 옳은 일은 밀어붙이는 힘 있는 회장이었다.’라는 별명을 얻고 싶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우리 회의 살림과 대외 위상에 걸맞은 힘 있는 건축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전북 회원들의 참여의식과 열정만 뒷받침되어 진다면 더욱 힘을 내서 강한 건축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끝으로 회원 외 일반 도민들이나 대외 인사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지속적인 홍보와 강한 행동으로 건축사는 전문가이다. 건축사가 설계를 잘하면 돈도 벌여줄 수 있다.’라는 존경받는 건축사로 알려지기를 희망합니다. 다행히 홍보예산을 조금 상향해 놓았습니다. 집을 지을 때 시공사부터 찾아가거나 공인중계사부터 찾아가면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꼴인 현 상황에서 건축사를 먼저 찾아야 한다는 홍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취재 : 강동영 편집인, 양우현, 윤미순, 양창근 편집위원, 최길호 학생 기자

정리 : 박승국 전담 기자(gjkira@empas.com)



**광주건축사회 주관, 2018 제15회 건축·도시사진공모전 진행**

총상금 400만 원, 광주·전남 내 우수 건축물 대상, 10월 12일까지 접수



대한건축사협회 광주광역시건축사회(회장 강현구)는 일반 시민이 건축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15회 광주건축·도시사진공모전을 진행한다. 제15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가 주최하고 대한건축사협회 광주광역시건축사회가 주관하며, 광주광역시가 후원한다.

공모주제는 광주광역시·전라남도 지역 내 우수 건축물(건축물 / 공간)이며, 건축과 사진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출품 가능하다. 10월 12일까지 1인 2작품 내에 12"×17" 사이즈의 필름 원판 또는 2MB 이상 JPG 원본 파일과 참가신청서를 광주건축사회(광주 북구 무등로 255, 광주건축사회관 4층)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 하면 된다.

총상금 400만 원으로 대상 1점 100만 원과 최우수상 2점 각 50만 원, 우수상 4점 각 20만 원, 장려상 10점 각 10만 원이 수여되며, 입상작은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광주광역시청 1층 시민홀에서 진행되는 제15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에 전시된다. 신청 서식 및 자세한 사항은 광주건축사회 홈페이지(<http://gjkira.kira.or.kr>) 공지사항 199486번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주건축사회 주관, 2018 광주건축문화투어 참가자 모집**

오는 10월 13일 진행, 서울시 일원 답사, 10월 5일까지 참가신청 접수



광주건축사회는 오는 10월 13일 올해 1차로 광주건축문화투어 서울권 답사를 진행한다. 제15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매년 광주의 건축문화 발전을 도모하고 건축사의 창작 의욕 고취 및 건축전공 학생들의 학구열 제고, 건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이번 투어는 2018 한국건축문화대상 입상작인 평화문화진지사와 2018 대한민국국도대전 대통령상을 수상한 서울한방진흥센터를 답사하고 2018 서울건축문화제(문화비축기지)를 참관하게 된다. 모집대상 및 모집인원은 건축사 및 소속사무소 직원, 교수 및 학생, 공무원 및 일반 시민 등 선착순 80명이며, 참가비는 1인당 3만 5천 원이다. 참가 희망자는 오는 10월 5일까지 광주건축사회로 전화(062-521-0025~6) 또는 메일([gjkira@empas.com](mailto:gjkira@empas.com)) 접수 후 참가비를 입금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건축사회 홈페이지(<http://gjkira.kira.or.kr>) 공지사항 199485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상된 경계들' 주제로 2018 광주비엔날레 개막**

지난 9월 6일 광주비엔날레 광장에서 개막식 열고 66일 일정 돌입

2018 광주비엔날레의 66일 항해를 알리는 개막식이 지난 9월 6일 광주비엔날레 광장에서 펼쳐졌다. 이날 개막식에는 이용섭 광주시장을 비롯해 김선정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 이진식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당장, 바르토메우 마리(Bartomeu Mari) 국립현대미술관 관장, 랄프 루고프(Ralph Rugoff) 2019 베니스비엔날레 감독, 마미 카타오카 모리미술관 수석 큐레이터, 스테파니 로젠탈(Stephanie Rosenthal) 2020 시드니비엔날레 감독, 2018 광주비엔날레 다수 큐레이터 등 기관단체장 및 시민 1,500여 명이 참석했다. 개막식은 가수 겸 배우 진영의 홍보대사 위촉식에 이어 큐레이터들의 전시 설명, 이이남 작가의 미디어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2018 광주비엔날레는 '상상된 경계들'이란 주제로 9월 7일부터 11월 11일까지 총 43개국 165명의 작가들이 참여해 동시대 경계에 대한 이슈를 광주비엔날레 전시관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지를 비롯해 광주의 역사적 장소와 지역의 문화 현장에서 시각적으로 펼쳐낸다. 제12회 광주비엔날레는 11명 큐레이터의 7개 전시인 주제전과 광주 역사성을 반영한 장소 특정적 신작 프로젝트 'GB커미션', 해외 우수 미술 기관 참여의 위성프로젝트인 '파빌리온 프로젝트'로 구성됐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의 비엔날레를 모두 관람할 수 있는 '비엔날레통합패스'를 출시했다.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광주비엔날레(9월 7일~11월 11일)와 부산비엔날레(9월 8일~11월 11일), 대구사진비엔날레(9월 7일~10월 16일),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9월 1일~10월 31일) 4개 행사를 관람할 수 있으며 가격은 1만6100원이다. 비엔날레통합패스는 티켓링크 홈페이지(<http://www.ticketlink.co.kr>)에서 구입할 수 있다.

**전남대 건축학부, 조선대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졸업 작품전 개최**

전남대 9월 6일 공대 2호관 영명홀에서, 조선대 9월 7일 공대 1호관 9층에서



전남대학교 건축학부(학부장 유우상)와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건축학전공(담당 교수 신웅주)이 2학기 시작과 함께 졸업 작품전을 개최했다.

먼저 전남대학교 건축학부(광주캠퍼스)는 지난 9월 6일 공과대학 2호관 영명홀에서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주석중 회장을 비롯한 광주건축사회 강현구 회장, 광주전남건축가회 박홍근 회장, 광주전남건축학회 이상준 회장 등 초청 인사 및 학생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졸업 작품전 2018' 개최식을 열고 9월 8일까지 작품 전시를 진행했다.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건축학전공도 지난 9월 7일 제1공학관 9층에서 제59회 건축전 개최식을 갖고 11층에서 9월 8일까지 전시회를 가졌다. 이에 앞선 6일에는 문훈건축발전소 문훈 대표를 초청하여 '그림으로 세상을 짓다'라는 주제로 초청강연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2018 건축사 자격시험 일반 및 특별전형, 9월 8일 열려**

전체 8,300여 명 중 5,800여 명 응시, 합격예정자 오는 11월 2일 발표



2018년도 건축사자격시험 일반 및 특별전형이 지난 9월 8일 실시됐다. 전국 5개 권역 20개 시험장에서 진행되는 이번 시험에 전체 8,300여 명 시험접수자 중 5,800여 명이 응시했다.

건축사자격시험 일반 및 특별전형 과목은 대지계획, 건축설계1, 건축설계2이며 설계 실기시험으로 치러졌고 절대평가 기준으로 60점 이상이어야 합격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모두 6,000여 명이 응시해 607명이 합격했다. 이번 건축사 시험의 합격예정자는 오는 11월 2일 국토교통부 및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한편, 광주권역에서는 광주전자공고에서 진행되었으며 410명의 시험 접수자 중 315명이 응시했다.

**읍·면·동장에 건축물 건축 신고 및 후속 행정 일괄 위임**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8월 28일 국무회의 의결... 데이터센터 등 건축물 세부 용도 신설



건축 행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읍·면·동장에 부분적으로 위임된 행정 권한을 건축물의 건축 신고, 대수선 신고, 가설건축물·공작물의 축조 신고 및 그 후속 행정까지 일괄 위임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8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건축물의 대수선 허가 절차가 구체화(시행령 제9조 제1항·제2항)되고, 가설건축물의 허가 및 존치 기간 연장 절차도 구체화(시행령 제15조 제8항·제9항, 제15조의2 제3항) 된다. 가설건축물의 경우 건축 허가 신청 및 허가서 교부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 존치 기간의 연장 허가 또는 신고절차는 최초 허가 또는 신고절차를 준용하도록 했다.

또한 건축물의 계단·복도 설치기준(시행령 제44조)과 공동주택 채광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시행령 제86조 제7항)을 개선하고, 행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읍·면·동장에 부분적으로 위임된 행정 권한을 건축물의 건축 신고, 대수선 신고, 가설건축물·공작물의 축조신고 및 그 후속 행정까지 일괄해 위임(시행령 제117조 제4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새로운 업종·시설 등의 등장에 따라 방송 통신시설에 '데이터센터'를 세부 용도로 신설하고, 양돈·양계 및 곤충 사육 시설을 '축사'에 포함하는 등 건축물의 세부 용도를 구체적으로 정비했다.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가 되면 개정 내용에 따라 즉시 또는 6개월이 경과 후 시행될 예정이다.



사랑에서 \_ 마흔여섯 번째

섬

무언가에 집중을 하다 보면 주변의 전혀 다른 것에서 그와 연관된 해결방안들이 찾아질 때가 있다. 어떤 생각에 골몰하면서 그간 쌓아 놓았던 책을 보다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라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때도 종종 있다. 이런 어떤 대상에 집요한 관찰과 호기심을 가질 때 익숙한 것에서 새로움을 볼 수도 있고, 낯설게 느낌을 받을 때도 있다.

詩人들은 서로 전혀 다른 것에서 비슷한 것들을 연결하는 탁월한 은유로 시를 쓴다고 한다. 얼마 전 최진석 교수의 강연회에서 들었던 '섬'이라는 시에서 독특한 시선의 사유를 느낄 수 있었다. 함민복 시인의 아주 짧은 시였다. / 물 울타리를 돌렸다 / 울타리가 가장 낮다 / 울타리가 모두 길이다 /

섬이라는 거대한 덩어리를 감싸고 있는 물을 울타리로 묘사했다. 난 지금까지 섬을 보면서 울타리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시인은 이를 울타리라 표현했다. 참 시선이 기발하고 다르다. 그리고 보니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접근하기가 어려우니 물을 울타리라고 표현한 것은 반전이다. 가장 낮은 울타리라는 표현은 대단한 사유의 힘이다. 더욱더 큰 감동은 울타리 모두가 길이라는 것이다. 배와 같은 것을 이용한다면 물 울타리는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길이 된다는 것일까. 어찌 되었든 대단한 관찰력과 사유의 힘과 번뜩임의 결과란 것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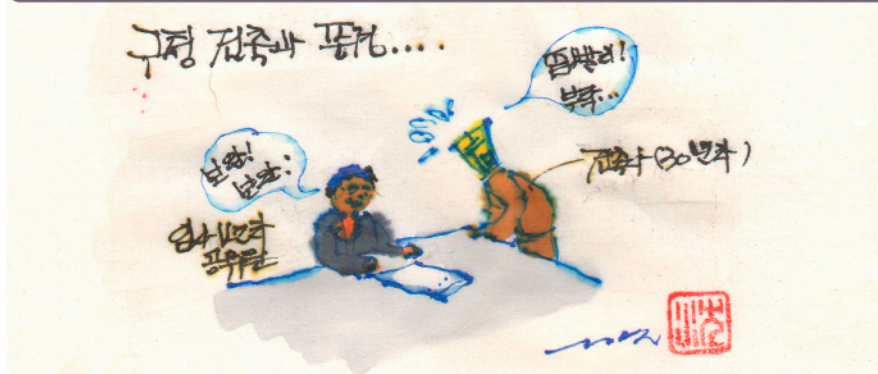
우린 우리 주변의 것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사유(思惟)하고, 호기심을 가지는가? 오늘도 어제처럼 관성적으로 이동하고, 일하고, 사람들을 만나지는 않는지 생각해본다. 하루하루 삶을 습관의 연속으로만 보내다가 짧은 詩지만 감명을 주는 시를 접하고 잠시 명상에 잠겨본다.

먹고살기도 바쁘고 힘드네 배부른 소리라 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먹고살려고만 세상에 태어난 것은 아니지 않는가. 행운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 살아있는 동안 그래도 내가 주도적이고,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삶을 살 권리도 있다. 그리해야 된다.

어제와 같은 습관적인 삶이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고, 호기심도 가져보고, 사유도 하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 어떨까. 시인의 수준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시인 흉내라도 내본다면 어제와 같은 오늘은 아닐 것 같다. 이게 조금씩 반복된다면 시한부 삶인 우리 인생이 조금은 더 의미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면서 지금부터라도 시인의 눈과 생각과 마음을 따라 해 봐야겠다. 카르페 디엠.

자문위원\_박홍근 건축사(aforyou@naver.com)

건축사 만평 \_ 심상봉 건축사 作 /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



법/령/소/식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http://www.moleg.go.kr) 또는 대한건축사협회(http://www.kira.or.kr) 법령정보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201519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등 11인)

▶ 제안 이유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은 2012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이 추가된 것을 제외하고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원활한 공급, 자연환경 및 경관의 개선과 복원,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 서비스 제공 등' 2002년 법 제정 당시의 내용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

이에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국토의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에 추가하여, 압축적 토지이용, 스마트시티 등 새로운 도시정책 방향이 도시계획 수립 시 반영 될 수 있도록 함.

한편,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설정 시 효력발생요건인 지형도면 고시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법 규정을 명확히 하고, 개발행위 및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등에 대한 행정조사 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계획적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추가(안 제3조)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대응, 새로운 기술변화의 적용을 통한 최적의 생활환경 제공을 기본원칙에 추가하여 각종 도시계획 수립 시 반영되도록 함.

나.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시 지형도면 고시 등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63조) 주인의견청취·지형도면 고시 등에 대해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을 따르도록 하여, 절차 누락에 따른 효력 미발생 문제를 방지함.

다. 개발행위·도시계획시설사업 등에 대한 행정조사 요건 구체화(안 제137조) 관련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 등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조사 대상·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요건을 구체화함으로써, 행정조사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함.

□ [법령][201518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등 14인)

▶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령상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으나, 이는 법 시행 이후 신축되는 건축물에 한하여 적용되고 있음.

그러나 제천·밀양 등 최근 발생한 대형인명피해 사고는 대부분 기존 강화 이전에 사용승인 된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고 있고, 특히 건축물의 외벽 마감 재료로 가연성 재료를 사용하거나 필로티 구조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화재 발생 시 수직으로 확산되는 화염을 차단하지 못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기존 건축물 중 화재발생 시 대형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의료 시설, 노유자시설 등 우선적으로 화재안전성능 확보가 필요한 건축물의 범위를 정하고, 해당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을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화재 확산 방지 및 대형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5조의3 신설 등)

건축문화사랑

2009년 11월 10일 창간

발행처: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발행인: 강현구, 조연준, 이길환
창간발행인: 신정철, 김경수, 이상엽
역대발행인: 심상봉, 안길전, 국원식, 김남중, 윤문곤, 정명철, 박용목, 전병갑
초대편집인: 박홍근
편집인: 강동영
부편집인: 박주현, 박종호, 양우현
자문위원: 서재형, 정명환
전담기자: 박승국
논설위원: 이순미, 신영은, 박신남, 강필서, 이종순, 백재봉
편집위원: 정관성, 김미영, 윤미순, 양창근, 최정미, 임태형, 김영규, 박종혁, 설혜순, 정영법
등록번호: 광주광역시 라00144
등록일: 2010-01-25
편집및인쇄: 레이아웃 T. 070-8277-2589
광고신청: T. 062)521-0025

광고 및 구독신청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을 바랍니다.

- 후면 전면광고 : 1,000,000원
•후면 외 전면광고 : 700,000원
•하단광고 : 350,000원
•하단1/2광고 : 200,000원
•구독료 : 20,000원/1년
•구독료입금계좌
예금주: 광주건축사회
계좌번호: 신한 131-009-471898

건축문화사랑 신문

T. 062)521-0025~6 F. 062)528-0026

건축문화사랑

신문 발전기금을 모집합니다!

- 발전기금: 1만원부터
•후원방식: 신한 131-009-471898 (예금주: 광주건축사회)
(주)씨엠엑스 350,000원
(주)마이다스아이티 300,000원

건축문화사랑 원고모집

건축문화사랑에 게재할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독자사진/지역소식/동호회소식/책/수상/수필/작품노트/건축작품/독자만평/기타(기행문, 시, 문학작품, 미담, 학위취득, 교수임용, 인사이동 등 회원동정)
원고마감: 매달 25일
문의: 광주건축사회(T. 062-521-0025)
E-Mail: gjkira@empal.com
1. 건축작품 및 기타를 제외한 모든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
2. 원고에는 작가의 사진과 사무소명, 직책 및 약력을 첨부
3. 원고는 아래 한글, 명조체, 10pt로 작성, 사진은 디지털파일로 제출



세상사는 느낌 \_ 홍승완 학생기자 /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도시재생, 그 의미에 대하여

집인 광주에 올라갔을 때 약속을 가는 길에 전남대 동문 아래에 있는 중흥동을 지나갔다. 소문으로 들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진행 중이었다. 드문드문 멀쩡한 주택과 사무실을 제외하고 주거인이 이주한 주택이나 가게는 다 빨간색 래커 페인트 스프레이로 엑스가 쳐져 있다.

갓 스무 살이 되었을 때, 자주 친구들과 짜장면과 소주를 함께 들이켰던 가게도 유리창마다 빨간색 엑스표가 찍혀있었다. 입구에는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가게를 비웁니다.'라는 안내문이 너절히 붙어 있었다. 이 중국집 사장님은 어떤 마음으로 가게를 비운 걸까. 더 좋은 가게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 오랫동안 자리를 잡고 있었던 이 가게를 왜 비워야 하는지에 대한 회의감. 도시재생이 끝난 뒤 멋진 도시가 된 후 사람들이 유입되어 더 장사가 잘될까 하는 희망 등등...

복잡한 마음일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젠트리피케이션'은 아직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이곳의 원래 주민들의 머릿속엔 훨씬 더 큰 기대감과 희망을 품고 있을 테니까.

친구들과 나중에 메뉴판 아래쪽에 위치한 양장피나 유산술과 같은 메뉴와 이름도 어려운 여러 고량주를 곁들여 이곳에서 배터지게 먹자는 약속도 했었다. 지나가는 말이었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우선 실패는 생각하지 않아도 좋다. 맨몸으로 목표를 향해 달려 어딘가 있을 결승 테이프를 찾는 것도 벅차다. 트랙 가운데 앉아 두려움의 무게로 축정된 모래주머니를 발목에 차고 가다, 가는 결승 테이프를 찾기도 전에 지칠지도 모르는 일이다.

한 주택의 엑스표가 처진 대문 앞에 가정용 쓰레기들이 쌓여있다. 그중 낡은 보행기도 버려져 있다. 저 보행기를 탔던 꼬마는 건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따윈 없었을 것이다. 결국에는 많은 이와 마찬가지로 걷기에 성공해 몇 년이 지난 후 짐을 정리하며 쓸모없어진 보행기는 저렇게 쓰레기들 사이에 놓였을 것이다.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고민과 두려움은 버려두었다. 모든 이와 마찬가지로 언젠가 나만의 결승 테이프를 찾는 날이 올 것이고, 그 테이프를 끊기 전까지의 길이 평탄대로이든 험준한 산길이든 진흙탕 길이든 상관없다. 달리는 중간에 보행기가 나를 도와주거나 돌맹이를 밟아 넘어지거나 하는 것은 나중에 할 생각이다. 시선을 제대로 두고 달리다 보면 결승 테이프를 끊는 날이 올 것이다. 분명히...

한 편의 시 \_ 태완섭 사무국장 / 전라북도건축사회

회상

뿔뿔도 뿔뿔도 다시나고 뿔뿔도 뿔뿔도 다시나는 잡초	복터위에 개장국 한 그릇도 먹지 못한 채 비 오듯 흐르는 땀을 씻어가며 물새는 가죽 구두를 꺾매고 있다	상처와 피멍 자국이 선연한 흩어진 살 조각들을 모아 새로운 희망의 싹을 꺾매고 있다
뿔뿔것도 뿔뿔것도 없는 흔적	꺾매고 있다 열죽 덜죽 부끄럽고 더러움으로 응진 남은 세월의 천 조각들을 모아 꺾매고 있다	꺾매면서 흐르는 땀을 씻어내느라 애를 쓰고 있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조각난 추억의 조각들을 모아 꺾매고 있다		

책 소개 \_ 김일규 학생기자 /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한국에서 건축가로 살아남기

조성일 저 / 주택문화사 / 2017. 07. 12.

각자도생의 시대 속에서 건축의 길을 걷는 것은 힘든 일이다. 하지만 이 책 속의 많은 젊은 건축가들은 제각기 고군분투한 끝에 지금의 자리에 왔다.

그들의 건축관을 담은 인터뷰 형식의 '한국에서 건축가로 살아남기'라는 책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건축계의 진로를 생각하고 있는 주니어 아키텍트들과 건축학도들에게 건축적 커리어는 어떻게 쌓아가야 하는지, 그들은 어떻게 클라이언트를 찾고 어떤 고민을 하는지 등에 대해 알려줌으로써 꿈과 비전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질 수 있게 도움을 준다.

인터뷰 형식으로 쓰인 책이라 그들의 목소리가 바로 옆에서 들리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진다. 또한 내용 자체가 일반 대중과 건축주가 궁금해할 질문과 답변으로 이루어져서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 한국에서 건축에 대한 인식은 어떨까. 안타깝게도 사실 아직은 건축가에 대한 왜곡된 시선이 남아있다. 현재로서는 그나마 사회적 인식이 나아진 편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건축일을 한다고 하면 '막노동'이라고 무시하는 사람이 태반이다.

그만큼 건축 일에 대한 무지가 이유일 것이다. 현재의 시대적인 요구와 상황을 보면 다른 분야에서 건축의 영역을 침범하는 '융합의 시대'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시대 속에서 건축가의 위상, 역할을 알아주기를 바라며 말로만 외치는 것보다 건축가 본인이 직접 총괄적인 역할로서 큰 공을 세우고 보여줌으로써 건축가에 대한 선입견과 고정관념은 언젠까지 바뀔 수 있다.

대중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기보다 자부심만 내세우고 문제 해결에 있어서 소극적인 모습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나는 책 속 젊은 건축가들의 실천력에 놀랐다. 그들은 실천으로 문제를 직접 해결해 나간다는 것을 알게 되고, 앞으로 나만이 아닌 모든 주니어 아키텍트와 건축학도들의 건축관에 있어서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다양한 경험과 조언이 담긴 이 책은 건축을 통해 자아실현을 하겠다는 야망이나 후에 사회에 기여하겠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계속해서 건축에 대한 꿈을 꾸고 실천해가는 수많은 건축학도나 아키텍트들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탄탄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당신의 공사감리에  
날개를 달아드립니다!!



감리자 필수앱!! 터치 완성 체크리스트, 감리일지, 사진대지 스마트감리앱



PC로그인 [www.archim.kr](http://www.archim.kr) 콜센터 02 3462 1336  
[문의] 이기상 건축사 (010) 8276 6158

